전호근 <맹자,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다스린다>

1강 맹자, 양나라에 가다

◆ 1교시 맹자사상의 세 기둥-왕도정치, 혁명론 그리고 성선론

▲ 맹수레, 맹자 - 천하를 돌아다니다

이번 시간에 읽을 문헌은 맹자입니다. 저는 맹자라고 하면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작년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맹자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 때 쓴 책 제목이 '맹수레 맹자 - 천하를 돌아다니다'입니다. 그전에는 공자를 주제로 '공자 지하철을 타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맹자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맹자를 '맹수레'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맹자의 바로 수레이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성이 '맹'이고 이름이 '가'여요. 그리고 자는 '자거'입니다. 子는 존칭으로 붙는거구요. 실제로 이름과 자를 서로 관련되도록 짓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는 성이 '공'이고, 이름이 '구'입니다. 자는 '중니'입니다. '중'은 둘째 아들이라는 뜻이고, '니'가 자인 셈인데, 니구산에 빌어서 공자를 낳았다고 이름을 '구'라고 짓고, 자를 '중니', '니'라고 한 것이죠.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는 수레이고, 이름인 '가'는 수레의 일부인 굴대를 의미합니다. 바퀴가 돌아가도록 역할하는 것이 굴대죠. 평생 동안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녔던 맹자의 일생이 이름에 표현됐다고 할 수 있죠. 맹자의 일생을 예견하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요즘처럼 아이가 태어나기 전 또는 태어났을 때 바로 이름을 지어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커가며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후에 읽어볼 맹가순경열전에서도 나중에 이름을 지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맹자는 공자만큼이나 천하를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공자는 진나라, 채나라 사이에서 곤경에 처해서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공자를 수행하는 제자들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영양실조에 걸리는 고통도 당하고, 송나라에 갔을 때는 환태라는 자가 나무를 베서 그 쓰러지는 나무에 공자를 깔려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또 광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7일 밤낮동안 익힌 음식을 먹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고통을 많이 받다보니 공자가 채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이 묘사된 문헌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랄한 표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상가지구(喪家之狗)'라는 표현이 나왔죠. 喪家는 흔히 초상집을 의미하지만 풀이하면 '집을 잃어버렸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喪家之狗는 '집을 잃어버린 개'라는 뜻도 되고, '초상을 당한 집안의 개'라는 의미도 됩니다. 두 의미 중 어느 것이 옳든 간에 공자의 행색이 마치 상갓집 개처럼 아주 초라한 행색이었음을 말해주는 그런 기록이죠. 이 열자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좀 달랐어요. 공자는 평생 동안 돌아다니긴 했어도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서 정권을 한번 잡아보려는 의지도 있었다면, 맹자는 과연 이 나라에서 정치적인 권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의심될 정도로 태도가 아주 단호합니다.

▲ 맹자는 세 가지만 얘기한다 - 왕도정치, 혁명론, 성선론

www.artnstudy.com

제가 서양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과 같이 맹자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철학연구회라는 곳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거기서는 동서양 철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저는 예들 들어 칸트가 읽고 싶으면 칸트 전공자와 같이 읽습니다. 전공자 없이는 그냥은 못 읽죠. 그리고 서양철학 전공자는 저와 함께 맹자를 읽기도 하는데, 모임에서 서양철학 전공자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임금들의 질문에 맹자가 항상 동문서답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맹자는 계속 동문서답을 해요. 이를테면 맹자 첫 번째 권을 펼치면 양나라 혜왕이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것인가. 리오국을 이야기하죠. 맹자는 이것을 그냥 무시합니다. 왕께서 내 나라를 이롭게 하려 한다면, 대부는 자기 가(家를) 이롭게 하려 할 것이고, 또 사서인은 자기 몸을 이롭게 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나라 선왕이 패도정치에 대해서 물어요. 패도정치를 맹자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힘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패자가 된다는 뜻인데, 당시 제나라 선왕이나 양나라 혜왕의 입장에서 보면 패도정치에 대해서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맹자는 패도정치에 대한 대답을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하는 얘기가 맹자 스스로 중니의 문하를 자처하면서 "중니를 사숙(私淑)했다"고 그래요. 사숙이라는 표현은 맹자의 처음 나오면서 두 번이나 나와요. 내 마음대로 공자의 숙(淑)은 착할 선(善)이여요. "공자의 장점을 취해서 공부했다, 나 자신을 수양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중니의 문하를 자처합니다. 그런 중니의 문하에서는 어린아이라 해도 이 패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왕도정치로 주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맹자는 세 가지 이야기만 계속해요. 첫 번째는 왕도정치입니다. 왕도정치는 당시 지식인들의 '누가 천하를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대한 유가 지식인의 답입니다. 공자 때에는 주나라가 건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었어요. 때문에 주나라 이외에 다른 어떤 누가, 어떤 왕자가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나라 문화를 복원할 것인가, 그게 공자의 시대적인 한계에요. 그런데 맹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미 주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나라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나라 문화를 찬양하기는 하지만 주나라의 정책이나 정치권력에 그대로 의존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왕도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왕'이 되어서 그런 도리로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맹자의 왕도론입니다. 결국 누가 천하를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은 혁명론입니다. 혁명론은 천명을 혁(革), 즉 바꾼다는 뜻입니다. 혁은 원래 가죽이라는 뜻이죠. 가죽이 철마다 바뀌므로 털도 바뀌고, 색깔도 변하므로 가죽 자체에 '바꾼다'는 뜻이 담겨있죠. 혁명하면 천명을 바꾼다. 천명이라 하는 건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하늘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느냐, 덕이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천명을 다시 바꾼다.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왕도정치가 누가 천하를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혁명론은 누가 천하를 다스려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구는 절대 안 되는가, 이게 혁명론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으면, 맹자는 왕도주의 아니면 혁명론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질문에 들어가면 맹자는 계속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www.artnstudy.com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논증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건 찬찬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예로 고자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고자와 맹자의 대화 속에서 "성선이냐, 성악이냐, 아니면 유선유악이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선과 악이 각각 존재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의 본성은 선하고 어떤 이의 본성은 악하단 말인가, 아니면 상중하의 등급이 있단 말인가. 이런 식의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악으로 나눌 수 없지 않느냐. 물을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선과 악 중 어느 쪽으로 터주느냐에 따라 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선악을 미리 결정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도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강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성선설도 결국엔 왕도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인 담론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 왕도정치의 바탕이 되는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은 그냥 인간의 본성이 착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담론이에요. 왕도정치의 근거가 바로 성선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왕도정치라는 것이 왕의 덕을 바탕으로 다스리는 사랑의 정치거든요. 인정이라고도 하죠. 맹자는 여기서 '인'은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공자의 '인'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인정이라고 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곧 그게 왕도이고 덕치인데, 왕도와 덕치의 근거는 성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도와 덕치가 가능한가. 순자는 법가사상가에 들어가서 왕도, 덕치 이런 것 없습니다. 상군서나, 상앙이죠. 법가사상에서 보면 덕은 강함에서 나옵니다. '强生德'이라고 얘기하죠. 덕을 통치자가 가지는 일종의 카리스마라고 보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강함이 결국 그 덕을 낳는 거다. 흔히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强'은 어디서 생기는가. '力生强' 즉 힘에서 나오는 것으로 법가식으로 이야기하면 힘센 자가 최고라는 이야기여요. 그리고 백성들과 통치자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파악합니다. 民弱國强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약해지면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약해지면 나라가 강해져요. 반대로 民强國弱입니다. 백성들끼리가 연대가 강화되면 결국 서로 좋은 일만 하려고 해서 전체 사회에 해가 된다는 식으로 본 것이 상앙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일부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백성, 민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인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맹자는 끝까지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앙이나 한비자나 이사 같은 사상가들에게서는 덕치의 씨앗이 없어요. 덕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싸우고, 그리고 서로 싸워서 죽이는 수많은 악의 근원인 인간을 대상으로 덕치를 해봤자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강제로, 처벌 위주로 이렇게 다스릴 것인지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앙이나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農戰政策이라고 해서 농업생산력 증진, 전투력 강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생산수단으로, 노동력의 제공자, 전투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해하죠. 법가만이 아니라 당시에 병가로

www.artnstudy.com

분류되는 사람들도 사실 사정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용을 전제로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손자도 그렇고 오자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해요. 인정하는 것과 그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전체로 보면 왕도정치와 혁명론과 성선론이 일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왕도정치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왕도정치가 안 되면 혁명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 이론의 전체적인 근거는 인간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단순히 인간의 본성은 착하므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비정치적으로 왜곡된 것인데, 실제로 정치를 아예 배제하는 것만큼 정치적인 게 없죠. 순수, 아주 정치가 전혀 없는 순수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맹자는 이런 계열에 속해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일단 그 사람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맹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맹자의 전기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료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 사마천 사기에 맹가순경열전이 나오죠. 맹가순경열전을 보면 맹자열자는 208자입니다. 그 중에서 사마천은 태사공자서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의 전기를 짓거나 어떤 본기나 세가를 지을 때마다 왜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스스로 비평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게 자서입니다. 그게 바로 한나라 태사령이었던 태사공 사마천의 자서에요.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맹자 전기는 단지 137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37자 갖고 맹자의 삶을 우리가 되돌려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장자는 235자인데, 235자 갖고도 거의 되돌려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노자는 1000자가 넘는데, 거기에 무려 3~4명의 노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노자가 누군지 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구요.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맹가순경열전에 나오는 맹자에 관한 언급, 137자는 대단히 뛰어난 명문입니다. 아주 짤막합니다만, 맹자가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고요. 맹자에 관해서 137자, 장자에게는 235자 밖에 할애하지 않았던 사마천이, 제가 괄호에 써놓은 것처럼 자객열전에 나오는 형가라는 인물에 관한 형가열전은 3000자를 넘어요. 3192자입니다. 형가라는 인물이 우연히 맹자의 이름과 같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형가는 연나라 태자 단의, 사주라 그래야 하나, 그 부탁을 받고 진나라 진왕 정, 진나라 왕의 이름이 정이죠. 그러니까 진시황 정입니다, 나중에. 진왕 정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고 진나라 조정으로 들어가죠. 형가가 자객열전 중에서 아주 뛰어난 자객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일개 자객에 관해서는 3192자를 기록했던 사마천이, 어떻게 맹자 같은 대사상가에 대해서는 137자 밖에 안 썼을까? 그러면 사마천이 맹자를 높이 보지 않았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천의 역사관 속에 맹자의 역사관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사마천은 맹자를 대단히 높이 평가했어요. 후세의 유학자들이 보기에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사마천이 맹자를 높이 평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가하면 공자와 같은 경우에는 세가에 나왔으니까, 제가 써놓은 것처럼 7369자에 이르니까, 공자는 전기가 거의 완비되어 있는 형태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전기는 완벽하죠. 사마천 사기에 보면 공자는 성인으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삶을 마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사마천의 공자 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의심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전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성인이다, 위인이다, 이런 식

www.artnstudy.com

으로 자질을 다 갖춘 것으로 나오면 그것은 상당히 조작된 냄새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읽은 위인전이 대체로 그랬죠. 에디슨 전기도 그런 경향이 있죠. 공자 세가도 대체로 그런 식으로 엮어서 만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자취가 있습니다. 맹자는 137자로 아주 짧게 남겨져 있는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 2교시 사마천을 통해서 들여다 본 맹자

▲ 추나라에서 태어나 자사의 문인에게서 배우다

사마천 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출신 지역부터 소개를 해요. 孟軻騶人也(맹가추인야), 이렇게 시작해요. 맹가 즉 맹자는 추나라 출신이라는 말이죠. 추는 나라 이름인데 추라고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본래 주국이었다고 하죠. 춘추좌씨전에는 주루라고 되어있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나라는 공자의 고국이었던 노나라에 붙어있는 작은 부용국입니다. 국력이라고는 거의 없어 독립적인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고, 노나라에 붙어서 천자국과 교통하는 그런 수준의 아주 약소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유세를 한 것이 당연하죠.

그 다음으로 受業子思之門人(수업자사지문인)야. 자사는 공자의 손자인 공급이여요. 공급인데, 자가 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이려니 공급이라고 해서 공자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자'하면 공자란 말이에요, '공'자를 안 붙여도 '자'하면 공자인데, 공자하면 공자를 가리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자사에게 공자라는 호칭을 못 붙이고 자사라고 그냥 '자'를 써서 높이는가 하면, 또 자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자를 붙여서요. 어쨌든 공자의 손자이면서 동시에 중용의 작자로 알려져 있죠. 중용이라는 중요한 문헌의 작자로 알려져 있는 이 자사의 문인, 문인이라고 하면 제자라는 뜻입니다. 자사의 제사에게서 수업, 학업을 수업, 전수 받았다는 여러 가지 주장이 많습니다. 자사에게서 직접 배웠다는 많이 설이 있지만 요즘 기준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세까지는 정통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혈통이나 학통, 연원을 따지다 보니 맹자가 자사에게서 직접 배웠는지 자사의 제자로부터 배웠는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우리 기준에는 별 의미가 없고 맹자에게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공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에게서 배웠다고 해도 맹자에게 특별히 영예로울 게 없다는 거죠. 자사의 생몰연대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공자의 맏아들 공백어, 맏아들이라고 伯(맏 백)자가 붙었고, 자로 漁(물고기 어)자가 붙었는데, 공백어의 이름은 공리에요. 鯉(잉어 리)자입니다. 공자의 아들 이름이 잉어였어요. 공자 아들이 오면 아마 다른 친구들이 잉어 온다고 그랬을 겁니다. 이것도 이름이 꼭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백어가 자사를 낳은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나라 때 초행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사가 공자의 손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엄청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낸 적이 있는데, 사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연대를 고증해보면 백어가 죽고 난 몇 년 후에 자사가 태어난 꼴이 되니까 도저히 공자의 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곤란한 정황인데, 연대가 잘못 쓰였을 거라 추정

www.artnstudy.com

합니다. 어쨌든 자사의 문인에게서 배웠다고 되어있고요.

▲ 추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다. 그리고 또 양나라로

道旣通(도기통)하고. 도를 이미 알았다는 뜻인데, 춘추전국시대에는 道라고 하면 전부 치도, 정치입니다. 道를 우주의 근본원리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치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직하고, 배치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이여요. 노자의 道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몇몇 구절을 갖고 도를 자꾸 추상화시키는 부류도 있었어요. 춘추전국시대의 도에 대해서 중국의 장순쉬라는 학자는 한마디로 人君南面之術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아주 타당한 주장이여요. 임금이 남쪽을 바라본다는 거죠. 본래 임금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게 되어있고요, 신하는 반대로 북면을 하고 임금을 섬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南面한다고 그래요. 남쪽을 바라보는 술(術) 즉 기술, 통치술 이런 뜻이죠. 천하를 다스리는 기술,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 그게 道죠. 맹자는 그런 치도를 확립했다는 얘기에요. 뭐로? 왕도주의, 혁명론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요순의 政治, 공자의 德治라고 할 수 있죠.
공자의 德治를 맹자가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맹자는 거기에 혁명론을 보탰을 뿐이죠. 공자는 탕임금을 언급하지 않아요.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왕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인정하지, 무왕을 맹자처럼 전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탕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탕임금의 혁명을 완전히 정당화합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는 게 맹자의 입장이죠.

어쨌든 그런 정치적 이념을 확립하고 나서는 유세해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작은 추나라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나라에 가서 선왕을 섬기는데 선왕이 불능용이라 등용을 못합니다. 맹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기꺼이 했는데, 맹자를 등용하지는 못해요. 맹자가 선왕에게서 등용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곳을 떠나면서 대단히 아쉬워하는 것이 맹자에 나와요.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선왕이 그만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거죠. 제나라 선왕은 소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 말고 양으로 바꾸라고 했답니다. 양은 안 불쌍하냐는 이의제기도 가능하지만 일단 소가 불쌍한 걸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맹자는 선왕의 입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진 마음으로 짐승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는 비난도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었던 임금이었는데, 등용을 못하고 결국 제나라를 떠납니다.

適梁한대, 그렇게 제나라를 떠나 적양, 양나라로 갑니다. 梁惠王不果所言이라, 양나라 혜왕이 자기가 말했던 것을 불과 지키지 않았다. 양나라 혜왕은 천하에서 인재를 초빙하죠. 왜냐하면 본래 양나라 혜왕 밑에 상앙이 있었어요. 상앙은 탁월한 법가정치인이죠. 법가정치의 창시자입니다. 결국 이 상앙의 힘으로 진나라가 천하를 차지하게 되죠. 상앙이 양나라에 있을 때는 상앙이 아니였어요. 상은 진나라의 지명인데, 상이라는 곳에 봉해졌기 때문에 상앙이라고 그러죠. 상의 통치자, 이런 뜻으로 상군이라고도 하는데 그전에는 위앙이라고 했죠. 작은 위나라 출신의 '앙'이라고 위앙이라고 불렀는데, 본래 위앙이 양나라 혜왕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위앙이 도망쳐서 진나라로 가버려요. 혜왕입장에서는 아까운 인재를 빼앗

www.artnstudy.com

긴 거죠. 그러다가 뉘우치고 천하의 모든 인재를 다 받아들인다고 광고를 했는데, 맹자가 온 거죠.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만나보고서(則見)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迂遠而闊於事情이라. 맹자 이 사람이 迂遠, 멀우, 멀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왕도정치, 성선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허구한 날 전쟁이 이어지는 전국시대의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현실과 거리가 멀고, 闊於事情, 세상의 실정이나 사정에 어둡다. 闊, 어두울 활자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 부국강병, 전승약적 - 병법이 활개치는 시절

當是之時하야. 이때를 맞이해서 진나라에서는 상앙을 등용하죠. 그게 바로 商君입니다. 진나라에서는 법가정치가인 상앙을 등용해서 富國彊兵을 꾀해요. 이 당시 모든 군주들이 바라는 게 부국강병이잖아요. 그리고 또 楚魏用吳起, 초나라나 위나라 역시 강대국들인데 오기(吳起)를 등용합니다. 오기는 본래 노나라에서 장군을 하다가 쫓겨나서 위나라로 가고, 위나라에서 쫓겨나서 다시 초나라로 갑니다. 어쨌든 오기를 등용해서 戰勝弱敵, 전쟁에서 이기고 적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손자병법, 오자병법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강대한 진나라와 위나라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을 때 오기가 서하수(西河守)로 있었거든요. 그 강대한 진나라가 한 발짝도 위나라 영토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킨 것이 오기입니다. 사람은 뭐 굉장히 시랑과 같다, 이리나 승냥이 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용병에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무섭습니다. 노나라에서 자기 아내를 죽여서 장군이 되죠. 자기 아내가 제나라 출신이니까, 제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함하죠. 그래서 제나라 출신인 자기 아내를 죽여서 장군이 되요. 결국 초나라에서 귀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오기가요. 죽을 때 임금의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죽습니다. 귀족들이 와서 활을 쏘니까 오기는 물론 화살에 맞아 죽고 대신에 화살이 임금의 시신에 꽂힌 거죠. 나중의 그 임금의 아들 태자가 왕이 돼서 그 때 오기를 쐈던 자, 자기 선왕의 몸에 화살을 쏘았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오기는 죽는 순간까지도 복수를 염두에 두고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능이나 재주로 이야기하면 하늘에 닿는 사람인데, 어쨌든 말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초나라와 위나라 사람들은 오기를 써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국을 약화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제나라에요. 제나라에도 인재가 많았죠. 제나라 위왕 그리고 또 선왕, 맹자와 이야기했던 제나라 선왕입니다. 제나라 위왕, 선왕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쓰냐면, 손자와 전기, 전기는 군사전략가고 손자 역시 병법가입니다. 이때 손자(孫子)는 손무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손자병법 할 때 손무죠. 손무는 초나라 왕의 궁녀들을 훈련시켜서 초나라의 근위병들을 이기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장군이죠. 도대체가 진다는 것을 모르는 병법가인데, 그 손무의 100년 뒤에 활동한 사람이 여기의 손자입니다. 이때 손자는 손빈입니다, 손빈의 '빈'자는 앉은뱅이 빈자입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실제로 앉은뱅이였어요.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본래 손빈에게 방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와 같이 손빈이 귀곡자에게서 같이 배웠다 이렇게 나와 되어있습니다. 사마천 사기를 보면,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흔적이 있는데, 귀곡자에게 배운 게 손빈과 방연이 있고, 소진과 장의도 있고 그래요. 좀 비슷한 서사구조를 가졌는데, 어쨌든 방연이 일찌감치

www.artnstudy.com

위나라 장군이 되요, 출세한 거죠. 위나라 장군이 돼서 출세하니까, 손빈이 방연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근데 방연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손빈이 자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데, 저 친구가 오면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한 끗발의 생각 차인데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손빈이 왔을 때 손빈을 모함해서 다리를 자릅니다. 그랬는데 손빈이 탈출을 해서, 제나라로 가서 전기에게 발탁이 되어서 제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위나라를 쳐들어가게 되요. 방연이 죽는 곳까지 알아맞히죠. 이에 이제 손빈이 나무에다가 글을 씁니다. 龐涓死于此樹之下라. 방연(龐涓)이 이 나무 아래서 죽는다. 그렇게 썼는데 방연이 그 나무 아래에서 죽습니다. 밤에 매복을 뚫고 움직이다가, 방연이 나무에 허옇게 쓰여진 자국을 보죠.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횃불을 켜는 순간에, 손빈이 미리 매복을, 매복한 병사들로 하여금 횃불이 켜지면 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방연이 불을 켜는 순간에 화살이 날아와서 죽죠. 어쨌든 수많은 이야기가 손빈에게 있는데, 손빈병법도 따로 있어요. 손자병법말고 손빈병법이 따로 있는데, 74년인가에 발굴이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없다가 74년인가에 발굴이 되어서 지금은 번역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손자나 전기나 이런 장수들을 등용해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제후들이 동쪽을 바라보고, 諸侯東面朝齊라. 제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方務於合從連衡이라. 그렇게 되어있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바야흐로 합종책이다, 연횡책이다. 합종이나 연횡이나 외교 전략인데요, 이를테면 중국이 있다 이랬을 때, 서쪽의 강대국 진나라와 대항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합종입니다. 진나라 말고, 세로로 이렇게, 북쪽의 연나라부터 남쪽의 초나라로 이어지는, 진나라에 대항하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합종책이고, 그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소진이죠. 그걸 또 깨뜨린 게 연횡인데, 진나라와 제나라로 이어지는, 천하가 진나라의 괴뢰정권 식으로 가는 거예요. 초강대국 진나라에 굴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외교, 국가질서가, 국제질서가 잡힌 게 연횡입니다. 이거는 소진과 동문수학했던 장의라는 전략가가 이런 식의 정책을 추구해서 결국 진나라가 천하를 차지하죠. 이 당시에 온 천하가, 진나라를 제외한 제후국들을 六國이라고 그러죠. 여섯 나라에요. 여섯 나라가 진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책략이다 정책을 다해봤지만, 결국 망한 건 육국이었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진나라에 대항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진나라와 밀실협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육국의 세력이 약화되어 진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 그래도 맹자는 인의의 정치를 외치다

전부 合從連衡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그런데 孟軻는 乃述唐虞三代之德하니. 당우, 당나라, 우나라, 곧 요임금과 순임금이 주장했던, 삼대의 덕, 인의의 정치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所如者不合일새. 137자인데, 꽤 많네요. 137자 너무 짧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꽤 됩니다. 所如의 如는 간다. 나아가서 만난 바의 사람과 不合. 뜻이 안 맞아요. 맹자는 인의의 정치를 주장하고, 당시의 군주들은 부국강병이라든지, 합종연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뜻이 안 맞았기 때문에, 不合,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退, 물러납니다. 退而與萬章之徒, 만장의 무리를, 退, 물러나서, 만장은 맹자의 제자에요. 만장의 무리와 함께 중니의 뜻을, 序詩書하고, 시경과 서경을 차례대로 서술하고, 述仲尼之意, 仲尼의 뜻, 공자의 뜻을 서술(述)해서, 진술해서, 作孟子七篇하니라, 맹자칠편을 적었다. 맹자는 전부 七篇입니다. 지금

www.artnstudy.com

은 이제 맹자, 예를 들면 양혜왕 上下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마치 14편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孟子七篇입니다. 이 맹자칠편을 가지고 사마천이 이야기한 게 태사공자서에 나와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읽어보도록 하죠.

◆ 3교시 何必曰利 - 어찌 꼭 이익을 말하는가

▲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하시겠습니까

맹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梁惠王章句上이 있고, 그리고 제 1장이 있죠. 맹자 1장을 탁 펼치면, 맹자가 누굴 만나냐면, 양나라 혜왕을 만납니다. 孟子見梁惠王, 이렇게 있죠.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見, 만났다. 만났는데, 王曰, 왕이 이야기했다. 叟不遠千里而來, 叟, 선생께서, 불원천리, 천릿길을 멀다 여기지 않으시고, 遠은 멀리여길 원자입니다, 멀다하지 않으시고, 來,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亦將有以利吾國, 또한 장차 앞으로 有以利,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有以는요. 有以利吾國. 또한 앞으로 吾國, 우리나라를, 有以利, 이롭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습니까? 利吾國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 임금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이익 따위가 아니다

양나라 혜왕이 한 나라의 군주로서 자기나라를 이롭게 해달라고 맹자를 초빙한 건데, 맹자의 대답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맹자의 이야기는, 何必曰利, 王은 何必曰利, 왕께서는 어찌하여 꼭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맹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亦有仁義而已矣. 또한 亦자가 있으니까 이를 강하게 해석하면, 이익만이 아니고 仁과 義 또한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而已矣가 뒤에 있기 때문에, 而已矣는 한문에서 갈진이무여지사(竭盡而無餘之辭)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해서 더 이상 남은 말이 없다, 그래서 ~할 뿐이다, 따름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而已矣는요. 논어에도 자주 나오고 장자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 亦자가 '또한'이 아니라 '다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왕께서는 어찌 꼭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로지 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인의의 가치야 말로 임금이 추구해야할 가치이다. 한나라의 국군이 추구해야할 가치는 인의지 이익 따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요. 王曰 何以利吾國, 왕께서 만약, 왕이 실제로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何以利吾國, 왕께서 만약 何以,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利,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曰, 생각하신다면, 大夫曰, 왕이 제후죠, 그 밑에 大夫가 있죠, 영지를 가진 대부가 있죠. 대부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何以利吾家요, 대부들은 家의 통치자니까 자기 家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家를, 나의 家를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 家는 그렇죠. 國과 家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家라고 하는 게 가족 단위의 아주 작은 단위가 아니라 커다란 행정기관입니다. 家에 가신이 있으며 國家라고 하면, 그때의 家는 state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를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大夫가 다스리는 거

www.artnstudy.com

죠. 대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家를 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또 士庶人曰, 선비들이나 서인들 일반 백성들, 士庶人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何以利吾身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 것인가? 나 한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게 되어서, 上下交征利,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두 다 交, 상호간에, 서로, 征利, 이익을 征, 취한다는 거예요. 원래 가서 빼앗는 게 征이죠. 이익을 다투게 되면, 이국위의, 그러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맹자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결국 국가 전체의 이익을 왕이 내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그 하위조직 또한 자기 家, 자기 몸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제지할 마땅한 논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두 이익을 우선시해서,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면 국가라는 전체의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위조직이 붕괴되면 국가 자체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붕괴가 되느냐?

▲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한다

萬乘之國, 千乘之國, 쭉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보시면. 萬乘之國에 弑其君者는, 원래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必千乘之家요. 萬乘之國 할 때 乘은 수레 한 대를 의미합니다. 수레 한 대를 乘이라고 하고 동시에 말 네 필을 乘이라고 그래요. 수레 한 대를 말 네 필이 몰기 때문에 萬乘之國하면은 말 사만 필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 또는 전투용 수레 일만 대를 동원할 수 있는 큰 나라입니다, 본래는, 보통은 天子國이라고 하죠. 天子는 바로 하늘의 아들 이런 뜻이니까, 뭐 天子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天子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통치자로서의 하늘의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민으로서 하늘의 백성 이런 의미로, 누구에게도 구속되니 않는 자유로운 사람, 그런 의미로 天子가 쓰입니다. 맹자나 이런 데서 天子 나오면, 통치자입니다. 하늘의 아들로써 천하를 대신 다스리는 統治者. 天子, 皇帝 이런 거죠. 天子國, 본래는 천자국이 萬乘이고, 제후국이 千乘이고 그래요. 전투용 수레 천 대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런 것인데, 맹자 당시에는 이미 萬乘之國해도 제후국이 됩니다. 국가의 규모가 크면 전투용 수레 일만 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규모가 큰 나라에서 弑其君者, 그 나라 만승지국의 군주를 시, 시는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게 弑입니다. 그냥 살해가 아니라, 신분사회에서나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용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해되는 거죠, 살해하는 거죠.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必千乘之家요, 반드시 千乘의 家이고. 國 밑에 있으니까 家라고 하는 거죠. 전투용 수레를 천 대를 동원할 수 있다하면 國이라고 호칭해도 별반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앞에 國이 나왔으니까 家를 붙이고요. 만승천자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 제후국의 신하이고, 또 千乘之國, 천승 제후국에서 그 군주를 죽이는 자는 반드시 百乘之家다, 바로 밑에 있는 신하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전부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쭉 읽어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萬乘之國에 弑其君者는, 만승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죽이는 것은 반드시 천승의 가이고, 千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百乘之家니, 천승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가이니, 萬取千焉하며 千取百焉이 不爲不多이지만. 萬에서 千을 취하고, 만승 천자의 나라에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千乘之家는 萬 말고 千을 취하는 거죠. 그 만에 천을 취하고. 또 그 밑에 있는 百乘之家는 千에

www.artnstudy.com

서 百을 취하는 거죠.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不爲不多의 의미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닌데, 苟爲後義而先利면, 만약 후의, 참으로 의리를 뒤로 돌리고, 先利, 이익을 앞세운다면, 不奪이 不饜, 윗사람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不奪不饜, 빼앗지 않으면 싫증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찬탈에 시해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인의의 정치를 베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저렇게 이야기하죠.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仁義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仁을 추구하면서도, 遺其親, 자기 어버이를, 遺, 버리는 자는 未有, 아직 없고, 없지 아니하고, 未는 '아직 ~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직 있지 아니하고. 또 義로우면서도, 義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後其君, 자기 군주를 뒤로 돌리는 경우는 未有,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仁義가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반복하면서 맹자의 첫 문장이 끝납니다.

▲ 이익이라는 것은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시작이다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사마천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앞쪽에 있죠. 2페이지를 보면요. 거기에 태사공의 자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태사공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余讀孟子書, 내가 맹자라는 책을 읽다가, 孟子 그러면 맹자라는 책도 되고 동시에 맹자라는 사람도 되죠. 그래서 '書'자를 붙입니다. 余, 내가, 맹자 책을, 讀, 읽다가, 至梁惠王問何以利吾國하야, 내가 맹자를 읽다가 양나라 혜왕이 問何以利吾國,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問, 묻는 대목에, 至, 이르러서, 未嘗不廢書而歎也, 未嘗不은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맹자를 읽다가 이 대목만 읽으면 廢書, 책을 덮고, 탄식했다. 그리고 이익을 폐단을 이야기합니다. 嗟乎라, 아아. 利誠亂之始也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亂,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시작이다. 誠은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시작이다. 夫子罕言利, 부자는 공자입니다. 사마천도 夫子 그러면 공자입니다. 우리 선생님 공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런 식의 호칭을 가장 많이 쓰는 학자들은 송나라 학자들입니다. 부자하면 자기 선생인데, 그 선생이 누군가하면 공자에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그런 식의 호칭을 쓰라면, 자네 스승이 누구요? 공자.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어떤 의미일지. 이 송나라 때 학자들은 바로 자기가 공자의 정통적 계승자다, 이렇게 자부했던 거죠. 사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夫子하면 바로 공자였고. 夫子罕言利, 常防其原也. 부자, 공자께서, 罕言利, 이익에 관해서는 罕言, 드물게 말씀하셨다, 이익에 관해서는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논어 자한(子罕)편에 그대로 나와요.

논어 자한(子罕)편에 보면, 子罕言利與命與仁이시다. 선생께서는 子, 罕言, '드물 한'자거든요. 드물게 말씀 하셨다. 이익과 천명과 인에 관해서는 罕言, 드물게 말씀하셨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논어의 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요. 이익에 대해서 드물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납득이 가는데, 仁에 관해서 드물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논어에서 仁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만 해도 80여 차례가 넘습니다. 인에 관해서 자주 말했을 텐데, 드물게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子罕言利, 여기서 끊어버리고, 선생께서 이익에 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셨고, 與命與仁, 천명과 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장만 가지고는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결

www.artnstudy.com

된 견해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쨌든 사마천도 공자가 이익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드물게 말하였다는 것만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익에 관해서 드물게 말씀하신 까닭은, 常, 늘 그 이익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 그 이익의 근원이면 결국 亂의 근원인데,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그 亂의 근원을, 防, 막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故曰 ,논어에 나오는 말을 또 인용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放於利而行이면 多怨이라, 放於利, 이익을, 放, 따라서, 이익을 행동의 기준으로 놓고, 놓을 放자죠. 이익을 따라서 行, 행동하면, 多怨, 원망이 많게 된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게 된다. 이거는 自天子 至於庶人, 天子에서부터 서인,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好利之弊 何以異哉, 이익을 좋아하는 폐단이 어찌 다르겠는가, 그런 식으로 태사공자서, 사마천이 마무리했죠. 사마천의 맹자열전에서는 사실은 137자, 둘 다 합치면 208자지만, 여기에서 맹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맹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마 맹자 전체를 총괄해서 4글자로 압축해라 하면 하필왈리(何必曰利) 정도죠. 어찌 꼭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 전국시대의 하필왈리(何必曰利)와 지금

맹자편에서는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송나라 학자 중에 송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평화주의자에요. 예를 들면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견이 가서 말립니다. 그러다가 맹자를 만납니다. 석부라는 곳에서 맹자를 만나는데, 그 내용이 역시 맹자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맹자가 송견에게 물어요. 선생님이 가서 어떤 식으로 진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을 막으려 하십니까. 송견의 이야기가, 不利,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에게 다 불리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진나라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초나라 왕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초나라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나라 왕이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 전쟁을 하면 자기나라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두 임금 중에 한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송견을 비판합니다. 선생의 뜻은 참 좋은데,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려 하는데, 그 전쟁을 말리는 것은 참 좋은데, 선생이 내건 슬로건, 不利는 결국 이익을 내세우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전쟁을 말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인의를 기준으로 이 두 나라의 임금을 설득을 해야지, 이익을 기준으로 이 두 나라의 임금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현재까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이라크에 파병하고, 아프간에도 파병했잖아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에요. 이거 아니에요? 나아진 게 없죠.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익, 이때 이익은 국익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국익인데, 국익이 보장이 되면 가는 게 옳은가요? 어쨌든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과 좀 황당하죠. 미국 내에서 미국의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비율보다 우리나라에서 파병을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죠.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가 이익을 기준으로 한 논리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맹자의 이야기를 仁義라고 끌어내니까, 이게 상당히 공허한 것처럼 들리지만, 앞으로 맹자

www.artnstudy.com

가 이야기하는 仁과 義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 볼 텐데, 이익과 상반되는 것들이고 아까 양나라 혜왕을 맹자가 만났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仁과 義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하의 조직이나 유대나, 유대를 강화시켜서 결국엔 작은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의가 결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맹자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www.artnstudy.com